지역 소식통

부안소방서, 태풍 · 집중 호우 대비 행동요령 홍보

부안소방서(서장 최길웅)는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태풍 및 장마철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8월 초부터 중순 사이 전북 서부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 천둥·번개 등 위험 기상 현상이 잇따를 것으로 예측되면서, 사전 대비가 중요한 시점이다.

부안소방서는 군민들에게 행동요령 안내하고 있다 △침수 우려지역(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출입 금지 △하수도, 맨홀, 전신주 주변 접근 금지 △산사태 위험지역 및 급경사지 인근 사전 대피 △유리창·건물 간판 등 낙하물 주의 △TV·라디오·인터넷 등 통해 기상특보 수시 확인 등이다.

최길웅 서장은 "기상이변이 일상화된 요즘, 평소보다 강한 비와 돌풍이 예고된 만큼 행동요령 숙지가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소방서, 여름철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 당부

고온다습한 여름철은 세균 번식이 활발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이에 고창소방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요청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조리하거나 섭취하기 전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나 어패류 등은 속까지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보관한 음식은 반드시 끓여 섭취하고, 조리도구와 식재료는 구분해 사용하는 등 위생적인 조리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여름철 캠핑이나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식재료의 보관 온도 유지와 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조리 후 남은 음식은 즉시 냉장보관하는 등 안전한 식습관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안전 담보 없이 공사 강행 불가"

정읍시, 정읍그린파워에 공사중단 강력 요청

이학수 정읍시장이 4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화력발전소 공사 강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읍그린파워㈜가 정읍제1일반산업단지 내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공사를 일방적으로 재개한 데 대해, 시는 시민 생존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이 시장은 "그동안 정읍시는 시민과 함께 수차례 공사 중지를 권고해왔고,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도 시민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공사 강행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그럼에도 업체 측이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재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4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화력발전소 공사 강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시는 바이오SRF 고형연료 사용과 관련된 허가 과정의 문제점, 주민설명회의 진위 논란, 당초 순수 우드칩 사용 약속 파기 등의 의혹을 언급하며 시민 수용성 없이 강행되는 공사가 시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가 2020년 승인 당시 부여한 △환경피해 방지 △정읍시·지역주민과의 협의 이행 △민원 대응 등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도 거론했다.

시는 해당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은 만큼, 오는 12월 말로 예정된 개발계획 연장 또한 면밀히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는 시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법원에 '건축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사와 관련된 후속 행정허가에도 협조하지 않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번 사안이 시민의 삶과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끝까지 공사의 부당성을 따져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고구마 들어간 카스타드 나온다'

고창군 · 행안부 · 롯데웰푸드, 협약… 고창꿀고구마 홍보 나서

고창 꿀고구마가 들어간 카스타드, 마카렛트 등 다양한 제과 제품이 출시되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연계된 이벤트가 열린다.

고창군이 4일 오전 고창군 웰파크호텔에서 행정안전부, 롯데웰푸드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심덕섭 고창군수,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배성우 롯데웰푸드 마케팅본부장을 비롯한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고창군과 롯데웰푸드는 행안부의 지원 아래 △고창 고구마를 활용한 특화 제품 출시 △공동 마케팅을 통한 고창 대표 특산물 인지도 제고 △롯데웰푸드 브랜드를 연계한 고창군 관광자원 및 국가유산 홍보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고창군은 전국 고구마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전북 최대 규모 고구마 산지다.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에서 자란 고창 고구마는 일명 '꿀고구마'라고 불릴 정도로 달콤하고 깊은 맛이 장점이다. 특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의 청정 환경은 롯데웰푸드가 추구하는 건강한 먹거리 이미지와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웰푸드는 올가을 고창 고구마를 활용한 계절 한정 13종의 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패키지에도 '고-참(창) 꿀맛 이구마'라는 재치있는 문구를 삽입해 달콤한 고창 꿀고구마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공동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고창군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팝업부스 운영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고창군 현지에서는 선운산, 고창읍성 등 다양한 관광자원 및 문화유산과 연계한 샘플링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고창의 유명 카페들과 협업한 프로모션도 준비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협약은 고창 농특산품의 가치를 높이고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행정력 전북에서 가장 빛났다

정읍시, 2024년 상급기관 평가 '총 55개 분야' 전북 1위 최다 수상 쾌거

정읍시가 2024년 한 해 동안 총 55건의 상급기관 평가 수상 실적을 기록하며 도내에서 가장 뛰어난 행정성과를 거뒀다.

시는 중앙부처 주관 평가에서 25건,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평가에서 26건, 기타 외부기관에서 4건을 수상했다. 이로써 시는 총 55개 분야에서 표창·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행정 전반에 걸친 탁월한 성과를 입증했다.

특히 이번 수상 분야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적극행정, 청렴도, 조직운영, 재정성과 등이 포함됐다. 일부 분야에서는 인센티브까지 확보하며 시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성과는 부서별 고유 업무를 넘어 시민 중심의 실용 행정,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 등 시정 전반에 걸친 일관된 혁신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시는 올해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정주 여건 개선과 도시환경 혁신, 미래세대와 청년을 위한 인프라 확충, 지속 가능한 농업정책, 맞춤형 복지 실현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시가 2024년 한 해 동안 총 55건의 상급기관 평가 수상 실적을 기록하며 도내에서 가장 뛰어난 행정성과를 거뒀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수상은 전 공직자가 함께 노력해 얻어낸 값진 성과"라며 "계속해서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정읍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올해는 70개 이상의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집중 점검

정읍시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가축분뇨의 효율적 자원화를 위해 관내 자원화 조직체 11곳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은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와 퇴비·액비 품질관리, 비료 살포 방식 등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점검을 통해 각 조직체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는지, 처리된 자원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농작물에 직접 영향을 주는 퇴비와 액비의 품질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살포 시기와 양, 대상 지역의 적절성 여부도 핵심 점검 항목이다. 이는 비료 오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악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민원 예방을 위한 선제적 행정이기도 하다.

또한 각 조직체가 관련 법령과 운영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환경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체계나 민원처리 절차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등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2025 모항 패밀리 해변축제 성료

부안군은 지난 2일 모항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되었던 2025 모항 패밀리 해변축제가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으로 성대하게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새마을운동부안군지회(지회장 권명식)가 주관한 행사로서 방송인 김종석이 MC를 맡았으며 색소폰 및 디스코 장구, 밴드 연주를 시작으로 김무진 등 초대 가수의 신명 나는 트로트 대향연이 펼쳐지고, 관광객들의 흥겨운 노래자랑까지 이어졌다.

뜨거운 여름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시원한 축제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가족들과 함께 힐링하러 찾은 부안에서 이렇게 신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쁘고, 내년에도 이곳 모항해수욕장을 또 찾아오고 싶다"는 소감을 말했다.

이에 권명식 지회장은 "지역민과 부안을 찾은 관광객들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면서 산, 들, 바다가 아름다운 부안을 알리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